



새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천상고 3-1 강나영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벌써 두 달이면 성인이지만, 난 아직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이 정도면 말해주지 않아도 혼자 할 줄 알아야지.”라는 말을 들은 게 몇 년째인데, 왜 아직도 그게 어려울까요. 나도 혼자 척척 해내고 싶고, 내가 바라보던 멋진 어른이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많이 걸어왔고, 오래 버텼다고 생각했지만 꿈을 이루기엔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은 줄 알았지만 주변을 보면 나만 모르는 것이 많은 어린아이라고 느껴집니다. 티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친구들과 닮은 척, 비슷한 척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닮아 보이려고 립스틱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친구가 백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놀란 표정으로 축하해주며 상금 좀 나눠주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대상을 받았다고? 학원을 다녀서 그래. 전문적으로 배우니까. 나도 학원 다니면서 배웠으면 벌써 2번은 받았을지도 모르지. 부러움과 열등감에 가득차 ‘다른 애들이 많이 없었거나 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라는 부

끄러운 생각도 했습니다. 단지 친구가 나보다 더 재능 있고 실력 있었을 뿐인데, 이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친구의 글을 보고 따라 써보기도 했지만, 결국 나는 친구와는 같을 수 없다는 사실만 더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왜 글을 쓰고 싶어 했는지를 떠올려봅니다. 중학교 3학년, 한창 놀기만을 좋아하던 때에 어쩌다 흥미가 생겨 나가게 된 글짓기 대회. 이 대회에서 받게 된 작은 상. 작품을 본 부모님의 칭찬과 가족들의 기특하다는 눈빛, 선생님과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글을 써야겠다.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글이라면 말이 아니어도 내 생각을 나타낼 수 있고, 상상력도 표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상을 타게 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쓸 때 너무 재밌었어. 안내된 범위에 따라 시험공부를 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던 나에게,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는 것이 생긴 날. ‘글’은 나에게 어둠을 밝혀줄 태양이 되었습니다. 어느 새벽, 독서실을 나와서 마주했던 어두운 구름과 차가운 공기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태양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어쩌면 새벽을 지나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건 없이 관심 있는 것만 많던, 별이 가득한 밤은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태양의 모습이 전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찾았지만 어두운 탓에 주변이 잘 보이지 않고 공기가 차가운, 나는 새벽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고, 한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듯이, 내 친구는

나보다 해가 일찍 뜬 것이겠죠. 앞으로는 친구의 태양을 좇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난 것처럼, 나에게도 친구보다는 느리지만 밝은 태양이 높이 떠올라 새벽을 지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나에게도 아침이 찾아올 거라 믿기 때문에. 새벽을 지나다 보면 지나가던 구름이 내 태양을 가려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름은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구름이 지나지 않는다면, 내 노력으로 바람을 불러일으켜 지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벽을 지나는 중이신가요? 느려도 괜찮아요. 당신의 태양을 찾았다면, 그 태양을 좇는 것만으로도 아침을 맞이하기엔 충분할 테니까요. 혹여 아직 밤을 지나는 중이래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래도록 숨어 있던 태양이, 더 많은 빛을 가져와 당신에게 올 새벽을 더 밝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어쩌면 새벽은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준비할 시간, 기나긴 밤을 정리하고 다가올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깐요.

저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새벽을 무사히 지나길 바랍니다.